

◎ 益山에서 石燈下 臺石 出土

지난 四月初 全北 益山郡 金馬面 노상리居住 오수복氏가 田畵의 整地作業中 發見하였다는 바 같은 地域에서 石棺도 出土되었다고 한다.

◎ 横成에서 銅鍾 出土

지난 四月十二日 江原道 横城郡 呂內橋 項里 畵中에서 古鐵蒐集者에 依하여 出土되었는데, 此外 磁器類 數點도 함께 收拾하였다 한다(이들 遺物에 對하여는 本誌에 紹介될 것이라 한다).

◎ 延世大 博物館 先史遺蹟 發掘

延世大博物館이 主管하여 昨年 十一月末에 發掘을 試圖했던 忠南 公州郡 長岐 面 石莊里 先史遺蹟의 第二次發掘이 지난 四月 五日부터 五月 三日까지 約 一箇 月間 進行되었다. 이번 發掘에서는 七百餘點의 石器和 瓦片이 採集되었다는 바 앞으로 年次的인 計劃아래 이 地域을 發掘하리라 한다.

◎ 坡州郡 玉石里 支石墓 發掘調査

國博에서는 지난 四月二일부터 五月三日까지 京畿道 坡州郡 月籠面 德隱里三 區(通稱 玉石里)에서 北方式 支石墓群을 發掘 調査하였다. 發掘된 支石墓는 六 基에 達하며 모두 倒壞된 것이었다. 이들 支石墓 中二基에는 支石內部에서 磨製 石斧와 半月形 石刀가 發見되었고, 또 그 一群中 가장 規模가 크고 丘陵頂部에 있었던 支石墓 밑에서 東西 一五·七m, 南北 四·七m의 長大한 堅穴住居址가 發見되고 그 속에서는 土器破片을 비롯하여 石鏃, 石劍, 紡錘車, 숯을 등 많은 種類的 石器가 發見되었고 또 支石墓群과는 떨어져 孤立되어 있던 한 支石墓는 그 周圍에서 性格을 確實히 把握하지 못한 遺構가 있어 그곳에서 많은 柳文土器 片이 發見되었다고 한다.

◎ 道馬里 李朝 陶窯址 調査

國立博物館 美術課에서는 一九六四年 十二月에 一部發掘調査한 바 있는 京畿道 廣州郡 道馬里 李朝初期 陶窯址를 계속 調査하기 爲하여 崔淳雨, 鄭良謨氏等 一行이 五月十一日以來 現地에서 作業中이며 이 發掘은 五月二十一日頃까지 繼

속될 豫定이다.

廣州 道馬里 白磁窯址 發掘調査略報

崔 淳 雨

一

京畿道 廣州郡 退村面 道馬里(도마치)부락 뒤언덕에 있는 崔大宇氏 소 유의 과수원(道馬里 二五一番地의 一)안에 李朝初期 白磁窯址가 있다는 것은 일찍부터 알려져 있었다. 이窯址에 대해서는 日本人 笠井周一郎이 이미 그踏查에서 얻은 知見을 紹介한(註)바 있고 筆者도 李朝初期의 中央官窯白磁特히 李朝靑華白磁의 初期를 밝힐 수 있는 열쇠의 하나가 이 도마치 白磁窯에 있음을 着眼해서 거듭 이窯址와 그 周邊을 踏查했던 것이다. 그후 一九六四年 十月末 僚友 鄭良謨氏의 踏查에 依하여 이窯址의 一部分이 즈음 部落民들에 依하여 함부로 파괴되어 破片들이 자갈 대신으로 신작로에 깔리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 중요한 遺構가 未久에 壞滅될 것을 우려한 우리는 이것을 긴급 發掘調査해서 資料를 收拾해 두기로 決定 十一月初에 거듭 豫備調査를 거친후 十二月 一日부터 發掘에着手했던 것이다. 이 第一次의 發掘은 資金難과 寒波때문에 十二月 十三日로 일단 中斷, 一九六五年 五月 十一日에 再着手해서 五月 二十一日에 그 조사的一段落을 보았던 것이다. 이窯址의 調査報告는 앞으로 出土遺物의 整理를 기다려서 詳細히 發表될 豫定이지만 우선 다음의 概略을 여기에 써두는 것이다.

二

이窯址에서는 發掘에 앞선 豫備調査에서 매우 優秀한 初期靑華白磁의 重要한 遺物이 筆者에 依하여 이미 採集된 바 있었고 또 이제까지의 이窯址에 대한 知見에 따라 많은 量의 靑華破片의 出土가 期待되었었다. 그러나 많은 量의 白磁片의 出土에 比해서 靑華 白磁의 遺片은 매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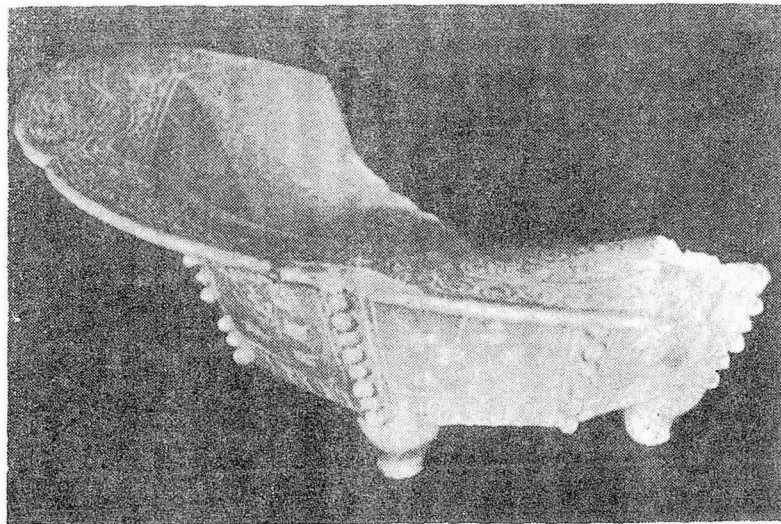
있던 當時의 樣相이 이 작은 「看色片」들속에 비추어 보이는듯도 했고 또 李朝初期의 始源靑華들의 色感같은 것을 가려내는 데에도 이 작은 看色片들은 적지않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試驗片들과 함께 靑華白磁成器의 破片들도 적지않게 發見되었는데 一部破片은 그 質과 圖文 그리고 發色이 거의 明宣德年間의 靑華와 흡사한 것이 있는가 하면 文人墨客들이 直接 道馬里에 出赴해서 詩文과 文人畵를 손수 쓰고 그랬다고 생각되는 文氣넘치는 斷片들도 적지 않았다. 이것은 明靑華의 技法 樣式을 받아드려 바야흐로 李朝靑華樣式의 成立을 바라보던 당시의 作風을 보이는 것도 되며 또 當時의 李朝知識人들 社會의 靑華好尙을 엿볼 수 있는 資料들이라고도 할 수 있다.

稀少한 것이 判明되었는데 이것은 아마도 그 무렵에 있어서 靑華白磁가 아직 도量産될 수 없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고 생각된다. 그대신 靑華白磁의 發色을 試驗한 所謂「看色」片들이 적지아니 出土된 것은 유쾌한 수확이었다. 世宗朝 무렵으로부터 世祖代에 걸치는 그 무렵 우리의 窯藝界가 渴望하고 있던 것은 靑華白磁의 國內生産이었다. 즉 이것을 급급히 서두르고

三

以上과 같은 靑華

史料의 發見과 함께 이번 발굴에서는 望外의 收穫이 있었는데 이것은 李朝靑磁와 李朝靑磁象嵌資料의 出土였다. 적어도 李朝初期까지에는 靑磁技法이 어디엔가 꽤 잘 傳承되어 있었으리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이번 發掘에서 出土된 一連의 靑磁遺物은 우리들에게 적지않은 놀라움을 주었다. 靑磁釉의 發色이나 胎質도 거의 高麗末 무렵것에 손색이 없는 것이었고 또 象嵌技法도 매우 신속한 作品이 十五世紀中葉으로부터 後半期에 걸쳐서 生産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특히 李朝初期白磁器片과 함께 녹아붙어서 나온 靑磁破片이 있는가 하면 그릇의 表面에는 白磁釉、內面에는 靑磁釉를 바른 異色片도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象嵌作品들을 보면 高麗의 象嵌技法으로 李朝의 人 圖文을 表現한 것으로서 여기에 李朝의 時代 감각을 이미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어서 자못 흥미로웠다. 이들 靑磁象嵌器들은 宮中用品이었던 것으로 推測되는 榻類와 八角形四足水盃類의 大小各種



이었는데, 조별구이를 포함해서 多量으로出土된 것이다. 靑磁는 이따
白磁好尙으로 들어선 李朝의인 時代感覺앞엔 아마도 한가닥의 鄉愁에
不過했을듯 그후 一般的인 普及도 量産도 企圖되지는 않았던듯 싶다.

四

이道馬里 가마는 아마도 李朝初期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中央官窯의
하나로서 李朝靑華의 始源이 여기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또
當時 數百個所의 많은 全國의 磁器所 陶器所를 實質的으로 指導하고 있
던 하나의 規範가 되었음으로 요섯말로 하면 中央陶藝센터라고 할 수
있을 위치에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全國地方 가마에서 生産하는 모든 가
마는 器形과 裝飾圖文等의 源泉을 이러한 가마들에 두었을 것으로 생
각한다. 이 가마에서 出土되는 白磁器들의 器皿樣式을 觀察해보면 거의
明朝의 器皿樣式이 길게 導入되어 있음을 볼 수 있고 이러한 器皿制式은
곧 이렇게 全國의 陶窯에 影響했던 것은 勿論이다. 이 發掘은 崔淳雨主
管으로 鄭良謨 俞門龍 李准求 李亨球 등이 參加했으며 僚友 鄭良謨氏의
刻苦한 努力에 힘입은 바 크다.

〔註〕 笠井周一郎 「李朝染付」 一五六面參照 一九四二年刊 東京 寶雲舎

洛東江口東岸의 貝塚

朴 商 憲

「韓國의 나일」이라고 불리우는 洛東江 江口 沿岸은 農耕과 漁撈生活
에 從事하기 좋은 곳이며, 介貝類가 特히 豊富한 곳이다. 이 江口 東岸
을 數次踏査한 下端——多大浦間(沿岸距離 約一〇km)에서 確認한 貝
塚址 몇 곳을 簡單히 紹介하고자 한다.

(1) 槐亭洞 貝塚의 位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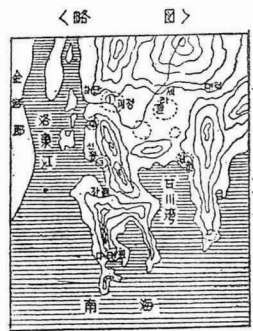
이 貝塚은 出土品 數點이 傳해오는 關係로 ① 그 存在가 認定되어
왔으나 位置와 內容이 不詳이던 것인데 筆者가 調査한 바로는 그 位

置를 槐亭洞에 있는 두 그루
의 큰 古木(槐) 中山麓가까
이에 있는 古木을 中心한 一
帶(槐亭洞 九〇三—九〇六
番地)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 理由는 첫째 本洞中이
곳에 局限하여 地中에 貝殼
이 豊富하다는 點이다.
約 四千戶에 達하는 各家

戶의 埋안과 田畝等 全面的으로 調査해 보았으나 단곳에는 貝殼의 埋
藏이 없었다. 또한 古老들의 말씀도 이 地帶에 집터를 닦을때나 우물
을 팔때 또는 道路工事를 했을때에 地中에 貝殼이 「無盡藏」으로 묻혀
있었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筆者가 이곳에서 破壞된 赤色土器 一點 ②과 土器片等 數
點을 採集한 바 있는데 이것이 傳 槐亭洞 貝塚出土品 ③과 같은 種類
라는 點이다.

세째로는 이곳 地形에서 本考察이다. 九德山줄기(세리곶)에서 물근
원하여 本洞의 中洞의 中央을 흘러서 下端 洛東江으로 빠지는 河川을
調査해보면 지금은 流幅이나 水量이 보잘것 없으나 옛날에는 오늘날보
다 넓고 水量도 많았을 것이라고 짐작이 된다. 이 水源은 매우 좋아
서 現在 私設水道의 水源池가 되었다. 貝塚址로 推定되는 곳은 이 河
川보다 苦干 높은 山麓 臺地에 東南向하여 있었을 것으로 본다. 뒤에
는 北西風을 막아주는 山이 屏風처럼 둘러지고 그 한줄기가 西쪽으로
뻗어서 洛東江風을 막아 주고 있으며 이 山모퉁이를 돌면 洛東江 三
角洲가 눈앞에 展開된다. 한편 河川이 흐르는 앞을 건너편에는 바다와
의 사이에 낮은 山이 防波堤처럼 길게 가로 놓여서 거센 海風을 막아주
고 있다. 이 丘陵같은 山을 넘어서면 南海 甘川灣이다. 그러니까 江과
바다가 모두 가까운 곳이다. 이와같은 마치 작은 盆地 모양의 地形을
山上에서 내려다 볼때 亦是先史住居地는 前記地點이었을 것이라는 判



① 槐亭洞貝塚址 ② 下端洞塚址
③ 新坪洞貝塚址 ○ 赤色無紋土器片散在地